

저명연주가 시리즈

<속초>

8.1(수) 19:30 속초문화회관

program

마누엘 데 파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불의 춤
(1876~1946)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1842~1912)

쇼팽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C장조, op.3
(1810~1849)
첼로 김민지
피아노 에반 솔로몬

브람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스케르초 c 단조
(1833~1897)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op.34, no.14
(1873~1943)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op.20
(1844~1908)
바이올린 신현수
피아노 에반 솔로몬
인터미션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2번 c단조, op.6
(1809~1847)
≡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 폰 푸요코
≡ 안단테 에스프레시오
≡ 스케르초:폴토 알레그로 - 파지 프레스토
≡ 피날레: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벤진
첼로 루이스 클라렛
피아노 피터 프랭클

artists

김민지

김민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건너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예비과정(Graduate Diploma)과 석사 과정, 연주자 과정(Artist Diploma)을 전액장학생으로 수료했고 2005년에는 프랑스로 건너가 퐁투즈 음악원에서 전문 공인 학위를 받았다. 김민지는 일찍이 동아일보 콩쿠르와 중앙음악 콩쿠르, 한국일보 콩쿠르에서 각각 1위를 했고 이렇 M, 클라임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및 위촉곡상 수상 외에도 예마누엘 포이어만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받아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정명화, 박성민, 로렌스 레서, 루이스 클라렛을 사사한 김민지는 현재 금호 제일비 뮤직 소사이어티,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명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에반 솔로몬

피아니스트 에반 솔로몬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며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일본에서 실내악과 독창회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폭넓은 레퍼토리로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국제 비올라 협회, 웨스트 포인트 클라리넷 협회, 스타팅-틸레이 심포지움 등에서 공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관영국음악제에 초청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면서 KBS와 NPR의 "Performance Today"에서 그의 연주가 방영되었다. 그 외에도 A&E Network에서 방영하는 "Breakfast with the Arts" 프로그램에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첼리스트 장한나와 출연하였고, PBS에서 방영하는 "Live from Lincoln Center: Perlman at the Penthouse"에도 그의 연주가 소개되었다. 1984년 테니 Michael Selis와 연주한 벤자민 브리튼 앨범은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그는 Cleveland Institute of Music에서 Olga Radosavljevic에게 피아노를 사사했고, Grinnell College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석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반주자인 Brooks Smith를 수상하였다. 에반 솔로몬은 1986년부터 줄라이트 음악학교에서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신현수

4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신현수는 10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 입학하여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의 사사를 받으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다. 국내의 많은 콩쿠르를 통해 탁월한 재능을 선보인 신현수는 2004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2007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등의 국제 콩쿠르를 통해 세계 바이올린계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았으며, 마침내 2008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퐁투즈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포함하여 당당히 4관왕에 입상하여 한국을 넘어선 세계 음악계의 신예 여성 음악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뛰어난 음악성과 풍부한 감수성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린 협연자로서 서용석, 오사기 심포니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협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규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NHK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의 국내외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리사이틀을 준비중이며, 특히 여름에는 교향악단 뮤직 페스티벌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크리슈토프 벤진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는 폴란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슈토프 벤진은 바르샤바와 프라이부르크, 런던에서 수학했다. 시마노프스키 콩쿠르와 리퍼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슈퍼 콩쿠르와 몬트리올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그는 세계 각지에서 연주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CD를 위한 녹음을 다수 제작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하노버 국립 오페라 및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악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3년 이래 하노버 극·음악 대학에서 강의했다. 또한 여러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하노버에서 열리는 요제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창설하기도 했다. 열정적인 실내악 연주자이기도 한 벤진은 '일 지오코 롱 수오노'(Il gioco col suono: '조리의 놀이'라는 악단을 창단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저지 작센 주립 음악상을 수상했다. 그는 도메니코 몬타나리가 제작한 베네치아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루이스 클라렛

9세 때 처음 음악을 시작한 루이스 클라렛은 모리스 장드롱, 라두 알들레스쿠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엔리코 카살스를 음악적 멘토로 만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1976년 카살스 콩쿠르와 1977년 로스 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그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가며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바츨라프 노이만, 모스틀라프 로스토프비치, 피에르 볼레즈 등 최고의 지휘자가 이끄는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실내악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클라렛은 그 실천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 트리오를 창단하여 13년 동안 연주활동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정기적으로 세계의 유명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현재 클라렛은 퐁투즈 음악원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있으며, 세계 주요 첼로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피터 프랭클

피터 프랭클은 1960년대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펼쳐 왔으며, 세계 유수의 뛰어난 오케스트라들과 쉐리, 아바도, 볼레즈, 하이팅크, 마젤, 마추어 같은 지휘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그는 5개 대륙 각지에서 공연을 가졌고 예든버러, 울드버러, 베르비에, 쿠모, 프라드(가살스), 말보로, 라비니아, 아스텔, 난탈리 등 여러 국제 음악제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런던의 BBC 프롬나드 콘서트에서도 연주했다. 그의 방대한 녹음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슈만과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 전곡과 브람스의 두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 삼중주, 모차르트의 여러 피아노 협주곡, 슈만과 브람스, 도흐나니, 드보르작, 마르티뉴의 피아노 오중주 등이 있다. 프랭클은 현재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며 부다페스트에 있는 리스트 아카데미의 명예 교수이다.

